

AUTHOR 신국원

TITLE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개혁신학적 조망

IN 교회와 신학

vol.64 (Spring, 2006): 14-20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개혁신학적 조망

문화변혁 운동에는 문화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변혁에의 열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속에 영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문화연구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신국원 | 총신대학교 교수 · 기독교철학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간단치 않다. 문화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과연 기독교 문화가 가능한지, 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문화이어야 하는 질문은 초대교회 이래 끊임없이 논란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간략한 글에서는 가급적 단순한 정의에 입각해 논의해야 작은 유익이라도 건질 수 있다. 이 글은 문화란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문화의 종교적 기초

문화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술이나 공예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서 문화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독특하고 공통적인 생활방식 전체이지만 좁은 의미에선 흔히 예술과 동일시되곤 한다. 따라서 한 시대나 지역의 예술은 그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경주의 불교 예술은 신라 시대의 삶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처럼 문화가 종교와 밀착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삶의 깊숙이 자리잡은 종교적 기초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신학적 조망은 문화의 종교적 뿌리를 인식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화가 종교적 기초 또는 영성(靈性)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 문화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모든 문화는 영적 토양에서 싹터 성장하며 모든 부분에서 영성을 드러낸다. 문화의 영성은 사람이 단지 본능적 생존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생존과는 직결되지 않는 의식이나 예술의 보편성이 그것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다양한 활동은 각기 본능을 초월하는 요소를 가지며 전체로서도 하나의 궁극적 의미를 향해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종교가 문화의 일부인가라는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기반을 이루는 신앙은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문화가 그것을 토대로 위에서 있다. 문화철학자 리처드 크로너는 이것을 고대인들이 육지가 밑에서 받치는 대양(大洋)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유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는 영성 위로 떠 있는 육지와도 같다. 이 영성은 문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므로 문화의 초석 노릇을 한다.

현대문화의 종교적 기초

오늘날 문화연구에서 문화의 영성 이해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자칫 문화의 종교적인 성격이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개념의 확장 때문이다. 문화를 정신적인 고급문화에 국한시키던 고전적 견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대중문화나 의식주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과거의 문화개념이 주지주

의, 이성주의, 엘리트주의에 기울어진 것에 대한 바른 비판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칫 문화를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기왕의 오해를 부추기 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문화가 고도의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그 영적 영향력이 주시되던 것과 달리 일상의 삶의 모든 내용을 문화라 이해할 경우, 문화의 영성에 대한 감수성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로 이 시대의 분위기가 문화의 영성을 적극 부정하는 일반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소위 포스트모던적 추세는 문화의 배후에 존재하는 통일적 구조도 부정하고 문화란 연관 없는 다양한 파편의 임의적 집적으로 보고자 한다. 즉 거기에는 어떤 통일된 방향성이나 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적 인본주의 시대의 문화의 구조적 통일성과 그 억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움직임은 문화의 방향성, 역사성, 통일성, 목적성 모두를 거부하고 그것을 말하는 무엇도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시대적 정서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문화학자들은 종교적 영성이 문화의 기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 실재하는 모든 문화가 영성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통적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이해는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먹거나 마시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는 먹거나 마시도 주를 대적하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문화를 중심 없이 해체하여 파편화 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정신 역시 하나의 강한 영성을 반영한다. 그것은 문화의 구심점이 영적 실재에 달려 있음을 부정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즉 흩어짐을 원리로 지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바벨의 정신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시대정신에 물들어 문화의 중립성을 가정하거나 영성을 간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을 국가의례로 주장하던 것이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수용한 가톨릭의 잘못된 결정이 그 좋은 예이다. 오늘날 열린 예배, CCM, 기독교 문화사역 등 세속예술 형태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문화의 영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흔히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문화의 영성에 대한 간과는 특히 문화 속에 절대적 가치를 구현하고 분명한 역사의 방향성을 지시하여 잘못된 문화를 개혁해 나가야 할 기독교인들의 사

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문화이해나 특히 영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문화비평은 단지 지적 혼돈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가치관의 정립이나 윤리적인 면과 신앙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문화관의 기초

문화가 그것이 기초하고 지향하는 궁극적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면 기독교 문화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를 둔 독특한 삶의 과정이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문화는 특정한 시대나 지역에 가사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한 문화가 어떤 종교적 기초에 입각해 있느냐를 보는 관점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문화관은 성경의 기본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와의 연관에서 가능하다. 창조의 원리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인간의 문화 사명을 알려준다. 성경은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그에게 속함을 분명히 한다. 스킨더가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잘 지적한 바대로 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서 비롯한다.³⁾ 문화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 문화는 인간의 지능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인간이 생각해내고 발전시켜 온 인간의 자율적 산물이 아니다. 문화는 반드시 영성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문화는 인간의 독특한 산물이요, 그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심 받은 바 그의 영성에 기초해 있다.

마찬가지로 타락의 원리는 왜 문화가 왜곡되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의 타락은 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유효하다. 문화는 세상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변한 것은 문화가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결과 문화와 예술은 흔히 우상숭배나 독신적 쾌락추구와 연관되어 있다.⁴⁾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떠나 인간의 안정추구나 나아가 탐욕과 권력욕의 도구로 화한다. 이처럼 죄의 영향은 구조적이기 보다는 방향적이며, 존재론적이기 보다는 윤리적이며 종교적이다.⁵⁾

구속은 회복이다. 세상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목적으로의 회복이다. 구속은 하나님을 향한 문화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구속사건이 역사를 마감하지 않았고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구원받아 새 사람됨은 문화의 변혁을 가능하게 한다. 타락 이후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화와 역사를 이루어 왔다. 이 일은 구속 이후에도 시공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나 아니면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냐이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도성 사이의 긴장과 대립을 보게 된다.

성경에 입각한 문화관은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소명에 기초한다. 이는 죄악으로 몰든 세상을 복음의 원리로 변혁시켜 가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이런 변혁주의 문화론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므로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구속의 결과로 오는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것이다.⁸ 구원은 타락으로 잃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본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이다. 신약성경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축약되어 있다.

변혁주의 문화관에서 본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혁을 이해함에 중요하다. 나라(βασίλεια)는 공간적 장소의 의미보다 주권(dominion)을 뜻한다. 아울러 그 나라의 도래는 잃었던 주권(主權)의 회복을 말한다. 그 나라는 구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곳에 임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고 고백되며 실현되는 곳이면 어디나 이루어짐을 말한다. 그의 뜻을 따라 만들어지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나라는 특정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는 영적인 성격이다. 너비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로서 세계 변혁은 그의 다스리심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⁹ 하나님 나라는 비전과 원리로서 변혁의 목표를 보여주는 역동적 원리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별한 양식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임했으나 아직도 기다려야 할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삼판주로 재림할 때 완성될 나라이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퍼져 나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사야 60장과 계시록 21-22장의 비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이에게는 세상에서도 그 나라가 보인다. 한편 지금은 특수한 과도기적 시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잘못된 낙관과 비관을 극복하고 바른 문화관, 역사관, 사회관, 가치와 도덕, 실천의 방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모든 문화적 행위와 노력은 인간이 궁극적인 것으로 믿고 섬기는 대상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것을 위해 바쳐진다. 헨리 반탈의 말과 같이 문화는 영적 섬김의 표현이다.¹⁰ 기독교 문화는 이론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향하는 이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종교 의식에 있지 않고 “의와 화평과 화락”과 같은 실천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롬 14:17).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방향을 달리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화는 종교에 의해 방향성이 좌우된다. 문화의 영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방향과 계획에 따라 나감과 그것을 거부하고 자율적이고 인본적 방향으로 나감,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은 기독교적 문화논의에서조차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를 기독교와 무관한 인간 자율적 행위의 산물로 생각하곤 한다. 또 문화를 신앙과 별개의 무엇으로 병립시키거나 심지어는 대립적 관계로 놓곤 한다. 흔히 잘못된 신앙생활의 전형적 형태로 언급되는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태도는 이런 잘못된 문화이해에서 비롯된다.

어느 시대에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많은 죄의 유혹과 불의의 위협에 부딪쳐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다. 사회와 문화가 기독교적 삶의 원리와 다른 무엇에 기초한 것이 그 궁극적 원인이다. 결국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이질적 영성(靈性) 또는 종교성에 기초한 문화에 의한 은밀한 압박이다. 이 점은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심각하게 인식되었으나 대부분의 기독교들은 결국 문화를 떠나서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주변 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역대의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들의 문화에 완전한 대안은 내어놓고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대 회람-로마 세계의 끝에 서 있던 어거스틴이나 인본주의 물결이 넘치던 근대 초엽인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으로 그들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한 공통점은 그들이 처한 문화의 문제점을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원리의 입장에서 비판하여 변혁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해에는 당대의 문화가 가진 영적 원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기독교가 지향하는 문화변혁 운동에는 문화의 영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화변혁 운동에는 문화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변혁에의 열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속에 영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문화연구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두 가지 사실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 거꾸로 절대성의 가치를 주장하여야 할 기독교의 영성이 이 시대에 있어 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 주

- 1) Herman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Pagan, Secular, and Christian Options*(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9).
- 2) Richard Kroner, *Culture and Fait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p. 13-30.
- 3) Klass Schilder, *Christ and Culture* (Winnipeg: Premier Printing Ltd, 1977), pp. 32-41.
- 4) H. Dooyeweerd,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ol. I, p. 100.
- 5) Albert Wolters, 양성만 역, 「침조, 타락, 구속」(서울: IVP, 1992), pp. 67-72.
- 6) A. Wolters, 「침조, 타락, 구속」, p. 83.
- 7) H.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pp. 225-226, 「그리스도의 문화」, pp. 224-225.
- 8)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0), p. 28.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부산: 성암사, 1977), p. 30.

기독교 문화의 인큐베이터 역할 - 철저한 자기진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급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다. 기독교는 '회개'라는 철저한 자기 점검으로 새로워지는 종교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놓치고 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건강한 문화를 회복하고, 기독교 문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의 건강상태부터 철저히 진단해야 한다.

이 의 용 | 교회문화연구소장,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누구에게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철학, 인생관 같은 게 있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기초로 이루어져 간다. 집단도 마찬가지로 집단 나름의 독특한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있다. 집단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문화는 특정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가진 독특한 삶의 방식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이루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은 집단 문화가 끼친 영향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